

“독자들과 교감하는 책의 존재론”

북디자이너 정병규씨

로베르 에스까르씨는 ‘책은 빵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의 결론은 책은 물론 송배나 광신적인 오브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빵은 인간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 준 신성하고도 구세주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지구상의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에는 그런 ‘신성한 빵’으로는 곤란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책 역시 정신의 양식였으며 무지로부터 인간을 구해준 위대한 오브제였던 것이다. 이제 심각한 ‘정신의 기근’은 책을 붙들고 그 속의 내용을 단지 보물처럼 떠받드는 정도의 바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되었다. 단지 책 자체를 아끼고 애호하는 교양인들의 세련된 취미는 ‘한쪽에선 기근이 낫는데 한쪽에서 다만 씨를 뿌리는’ 엄숙함이나 귀족적인 美食法 정도의 중요성 밖에는 안된다고 에스까르씨는 주장한다.

엄숙함을 버리는 일

그렇다. 여태껏 책은 오랜 시간 엄숙함을 대변하는, 즉 그 사회적 의미는 내용에 있어 왔다. 편집 디자인의 역할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지금,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책의 효용이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 디자이너 정병규씨가 생각하는 편집 디자인이란 바로 그 엄숙함을 버리는 데서 비롯된다.

“여태껏 우리의 책 만들기는 소비자로서의 독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좋은 내용을 담았으니 그리 알고 읽으라는 식의 생산자의 일방적인 전달이었지요. 더 잘 읽혀지도록 지면을 구성하는 법이나 책 자체만으로도 그만한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편집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출판물에 있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편집 디자인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한 출판 당사자들의 태도는 제각기 달랐다. 한편으로 인쇄하기 전 단계의 전 작업을 맡는 기능공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디자인만 잘 되면 내용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불상 사나운 책도 훌륭한 책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전반적인 출판물에 기여한 평균적인 역할은 결코 가벼이 평가될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책의 성격, 내용까지도 (디자인은 메세지라든 말도 있다) 개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책문화에 있어 큰 흐름을 결정짓는 것일 터이다.

북디자이너, 정병규.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구체적인 이력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작품 몇 정도는 보아 두었을 것이며 서점에 깔린 책들에서도 책 표지 위에 찍여진 그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그것은 그가 해낸 작업이 일단 양적으로도 대단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출잡아 2,000권이 훨씬 넘는 그가 디자인한 표지들이 출판계에 끼친 영향은 두말할 것 없이 막대하다.

그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글쓰기와 편집 쪽에 관심이 많았던 터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들어간 곳이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였다. 그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지금은 중견 문인이 된 이시영, 송기원, 박양호 등과 함께 일년 동안 같이 다녔다. 그때의 시간을 두고 ‘정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놓여질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시절’이라고 회고하기도 하는데 구름의 꼬트머리를 잡거나 그리는 기분의 소설 창작은 더 이상 그에게 ‘시간다툼’을 허락할 만큼 매력적이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았다.

좀더 ‘괜찮은 싸움’을 걸만한 데가 없을까. 그래서 창작이 아닌 문학이론쪽으로 돌아서기로 한다. 당시만 해도 문학이론에 있어 불문학의 위세는 대단한 것으로, 앞서가고 깊이 있어 보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불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고려대 불문과에 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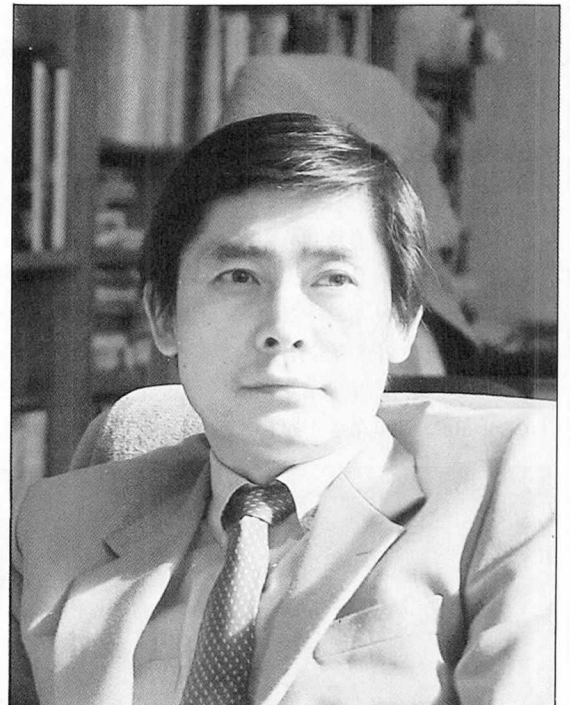
그러나 거기서도 그의 정력은 ‘엉뚱한 데’ 퍼부어지게 된다. 과의활동이어야 할 대학 신문사 일이 그의 본업이 되고 만다. 경북 고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만들어 보던 경험이 그를 다시 도왔겠지만 아무튼 신문의 전체지면을 거의 혼자 편집하다시피 했다.

사회에 나와 가진 첫직장은 「소설문예」였다. 그것도 잡지의 ‘실전경험’이 없던 그에게 편집부장이라는 자리가 놓여졌다.

“이창준, 송영, 강호무, 이계하 등의 까탈스러운 문인들이 「소설문예」의 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책 맛’을 톡톡히 본 셈이지요. 만약 그 직장에 안 들어갔다면 계속 ‘글쓰는 직업’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뒤 대한 기원의 바둑잡지를 창간하기도 하고 신문문화사에서 갖가지 편집일을 해대기

“우리가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중의 하나는 독서문화가 일종의 게임의 문화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진행되지만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지요. 바로 그 공간을 위해 디자인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병규씨

도 했다. 1976년 민음사의 박맹호씨를 만났다. 박맹호씨는 그의 별난 구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 하나가 오후 세시에 출근하는 것이었다. 밤낮을 심하게 바꿔 사는 사람 중의 하나인 그는 요즘도 그렇지만 대학시절부터 ‘통금이 시작되면 일을 시작하고 아침이 오면 자는’ 버릇이 몸에 배어 버렸다.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그의 감각까지도 박맹호씨는 폭넓게 수용하였고 그 관계는 그 후 수많은 민음사의 책들이 그의 손을 거쳐 나오는 데 하나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의 첫 표지 디자인 작품은 바로 민음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 만든 한수산의 ‘부초’였다. 그 당시 유행하던 알록달록하고 회화적인 책 표지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거의 모노톤으로 단정하게 처리한 표지였는데 그에 있어서나 또 출판계에 있어서나 사건으로 기록할 만한 일인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낯뜨거운 일이지만 겁도 없이 매달 두세권의 표지 디자인을 해대고 ‘세계의 문학’ 레이아웃, 광고 만드는 등의 못 하는 일, 아니 안 하는 일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직접, 간접적으로 민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는 이 출판사와의 작업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77년 그는 친구와 함께 ‘홍성사’를 차렸고 그때 몇가지 새로운 시도는 지금도 출판계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응용되기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책의 판형을 조금 바꾸어 판면과 여백과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띠지를 두르거나 스타일 시리즈를 강조하기 위해 큰 고유 숫자를 내세우는 등의 시도가 그것이다.

독자와 교류하는 책의 존재론

그리고 나서 그는 조그만 사무실을 열고 ‘북디자이너’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거리가 제대로 있을리 없고 출판사의 디자인료라는게 사진식사 비용 정도였던 시절이었다. 밥벌이마저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서도 좀 더 본격적인 수업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더욱 일었다. 1982년 그는 프랑스의 에스띠엔느로 떠난다.

에스띠엔느에서 그가 배운 것은 현대적 의미의 타이포그래피이다. 책, 잡지, 신문, 카탈로그, 포스터 등 인쇄된 모든 것을 다루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귀국한 이듬해인 1984년 2월 국내 최초의 편집기획회사 및 편집디자인 회사인 ‘정 디자인실’을 열었다.

그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작업은 사실 그의 출신(?)이 편집자였던 경험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편집디자인이란 말을 쓰기 전 시대에만해도 우수한 편집자는 곧 우수한 디자이너일 수밖에 없었다. 레이아웃이나 책꾸미기에 대한 기본 안목이 되어있지 않으면 편집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 힘들었을 때였다. 그러다 1970년대 말 경에야 편집과 디자인이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그 역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했다.

“한동안은 편집에 미련이 강했습니다만 양쪽 모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해 결국 편집디자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었지만요. 편집과 편집디자인 모두를 관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북디자인이라는 장르의 영역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애쓴 듯합니다. 특히 출판의 본령은 문학이라는 당위성 아래 책의 표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책 내용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독자와 교류할 수 있는 책의 존재론을 중요시했지요.”

우리 편집디자인의 좌표

책은 갈수록 부피를 잃고 있다. 근대적인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초기 책들은 대개 필사본이었다. 그것에는 필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목적하게 담길 만큼 부피를 지니는 것이다. 그후 금속 활자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입체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 나온 것이 사진식자인데 입체에서 평면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의 모니터 속에 좌표로만 존재하는, 즉 이미지화되어 버렸다. 입체에서 평면, 그리고 이미지로의 변화는 책을 만드는 모든 문화가 겪는 변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드물게도 그 세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편집디자인의 좌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미 책의 모습과 책을 만드는 모습은 급변하고 있다. 비디오북이나 디스켓북이나 하는 말도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피’를 가진 책이 무슨 소용이며 편집디자인은 또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정보의 유통을 이야기할 때 그는 먼저 빠르기의 문제와 파급 영향관계를 짚는다. 커뮤니케이션을 가속화하려는 급변하는 사회적, 과학적 요구와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려는 부단한 시도는 책의 형식에 영향을 적잖이 끼쳤다. 발레리는 정보의 소통시간과 이해 정도의 불균형을 말했는데 그 뜻은 비유하자면 당시의 상황을 지금 Global Country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맥루한은 더

좁혀 Global village, 즉 ‘지구촌’이라고 하였다. 맥루한에게 있어서 활자를 대신하는 전파의 위력은 주로 빠르기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속도, 그리고 교환되는 정보의 양에 의해 사회가 규정되는 것이다. 이제는 Global Room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할 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방 안에서 컴퓨터의 단말기 하나로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쯤되면 책의 존재는 다시 위협받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책들은 ‘정보기능화’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내용의 검색시간은 단축되어가지만 책의 ‘감상’이라는 과정은 생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책의 형식이 책 읽는 목적까지 변화시킨 셈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산자로서 편집기획의 의도와 소비자로서의 독서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편집(editing)의 시간이 없으므로 즉자적인 사고가 힘들어진 거지요.”

책이 무조건 효용적인 가치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그것은 마치 음식의 역할과 기능이 영양소 섭취에 있는 것인가와도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의 책도 정제(錠劑, tablet)화될지 모른다. 책이 컴퓨터 칩으로 변하고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책과 북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속한 정보화사회에서 책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중요성과 혼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량 생산의 뉴미디어들이 밖의 정보, 밝은 곳에서 통용되는 정보, 공적인 정보라면 활자 매체로서의 책이란 내면의 지식, 어둠속에서 싹트는 가치, 사적인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독서라는 행위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나 예술적인 표현 수단들보다 더 깊은 고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고독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빠르고 대량 생산되는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기 쉬운데 인간이 물질문명화된 사회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책의 특징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 특징중의 하나는 독서문화는 일종의 게으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지만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지요. 바로 그 공간을 위해 디자인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디자인의 경우 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책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 소홀해지기 쉬운데 다시 책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의 문화가 그다운 가치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디자인만이 더 발전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책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살피게 하는데 현재의 편집디자인 경향에 대해서 그의 우려는 이러하다.

갑작스레 출판물이 급증했으며 그 정신보다는 소비적인 디자인의 감각이 우선 발달해버릴 것이다. 그에 비해 제대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적다 보니 ‘과잉생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잉생산에는 항상 불량품의 확률이 높게 뒤따르는데 상업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잉화장’을 시키려 하게 된다. 특히 ‘출판물의 팬시화’ 현상이야말로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경향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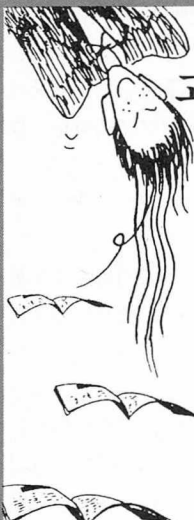
게다가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섀부른 모방작을 양산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출판물의 획일화 현상도 심각한 퇴보현상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책의 크기도 같고 색 쓰는 방법이나 활자 놓는 방법, 게다가 출판사의 요구까지도 다 엇비슷하다보니 디자인만으로 그 책의 성격을 알 수 있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그 주된 원인은 물론 상업성 때문이다. 디자

인 작업료가 초창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졌고, 또 편집디자인의 기명성(記名性)도 강해졌다. 바로 상업성과 기명성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개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개성과 정신을 표현하려는 자존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묘한 유행을 낳고 부정적 측면까지도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일년에 단 몇 권만이라도 책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하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 만들기의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거지요. 북디자인은 말하자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이며 중심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와 표현은 곧 ‘약속’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북디자인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한 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커뮤니케이션에는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따로일 수 없는데 그는 많은 화자와 청자를 향해 그의 안테나를 항상 열어서 두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업들은 우뚝해 보이는 것이다.



고감도 변덕쟁이는 표현의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 가보라인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내용이 좋은 책,
 표지디자인이 잘된 책,
 보기에 편하고 어법에 충실한 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책—
 그 책을 만드는 귀하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출판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 미술/ 표지디자인, 삽화
- 편집/ 단행본 교정, 교열, 운문, 사보편집
- 집필/ 회고록, 자서전, 광고문안작성
- 번역/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 전산/ 전산조판

출판 소프트웨어 —
가보라인

서울 종로구 재동 107-1(안국전철역 옆)
 T : 765-9027, F : 764-8238